



닭고기 포장유통

#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의 이해

농림부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04년 7월 수립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축산식품 안전정책의 기본 방향은 “농장에서 포크까지 (from Farm to Fork)”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다.

닭고기 포장유통 시행의 배경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양계관련단체들은 미국, 브라질 등 닭고기 주요 생산국의 시장장악에 따른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는 유통 중 미생물의 재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닭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는 필수적 이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농림부에서는 협회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4년 7월 29일 발표한 “축산물



이 기 중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

위생 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닭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1일 도축 8만수 이상은 2007년부터, 1일 도축 8만수 미만은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가공장 반출 부분육·정육과 지육을 절단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분육도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관련 단체 및 보도 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동 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2005년에는 닭고기 위생적 포장 유통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도 실시하였으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닭고기 포장유통 세부지침”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작업도 꾸준히 진행 시켜 왔으며 드디어 지난 해 3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우선 1일 8만수 이상의 5개 계열사(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



로, 올품)가 올 1월 1일부터 포장유통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 단계에 이르러 그동안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던 해당업체 등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에서는 올 2월에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를 위하여 포장 유통 의무업체인 하림 등 5개사를 비롯한 유통전문업체, 중소기업연합 업체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동 간담회에서 현재 포장유통을 시행하고 있는 5개 업체는 포장유통을 위한 최적의 조건 충족을 위해 가공장 등에 대한 조속한 전면 시행과 함께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을 요구 하였으나, 앞으로 적용 받게 될 업체의 경우

포장유통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포장유통에 따른 설비투자와 포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충당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닭고기 유통을 포장육과 비 포장육으로 이원화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는 계속업체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단계에 의무화 자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합리적 자세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포장유통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당시에는 시행상 쟁점이 되고 있는 온도 관리나 포장비용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닭고기 포장 유통은 시대적 흐름이자 의무이다.

작년 한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구입 시 가장 염두에 두는 요소가 무



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 과거의 양, 맛 보다는 안전 및 위생이 절반을 차지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또한 위생적인 축산물이라면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최근 생산자 및 업체는 변하고 있으며 변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현재 활성화 되고 있다. 사료, 가축사육, 도축장,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국민보다 위

생 및 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힘이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축산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농림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닭고기 포장유통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하여 계획대로 꾸준히 최선을 다해 추진하되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며, 아울러 관련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위생 정책에 대하여 생산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 포장 유통의 정착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업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양계**

##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 발간

본회는 채란인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산란계 사양관리 단행본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채란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수익을 기대하시는 분, 현장방문을 통해 농가 지도를 원하는 영업부 직원(사료회사, 약품회사 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내용 : 산란계 전 기간에 걸친 사양관리(일령별, 특수관리 등)
- ♣분량 : 약 400페이지 분량
- ♣판매 : 20,000원
- ♣구독문의 : 대한양계협회 홍보팀 장성영(02-588-7651)
- ♣계좌번호 : 087-01-166106(농협, 예금주 대한양계협회)

